국별 리포트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7.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9

Ⅳ. 국제신인도 12

Ⅴ. 종합의견 1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8,515천 Km^2	G D P	20,880억 달러(2010년)
인 구	190.30백만 명(2010년)	1 인 당 GDP	10,800달러(2010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eal(R)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76(2010년 말)

□ 국토 면적, 인구, GDP 면에서 남미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석유, 철광석 등 각종 광물자원과 커피, 대두, 원당 등 농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심해유전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세계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브라질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함께 내수시장이 크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브릭스(BRICs)의 일원이자,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된 중남미 최대 공업국임.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음. 2010년 10월 대선에서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우세피 후보가 당선되어 2011년 1월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정치적 리더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변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지속

○ 브라질 경제는 2007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PAC)시행,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은행 여신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고도 성장세를 지속해 왔음.

○ 2007~08년에는 국제금융시장 혼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PAC의 본격 추진, 자원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FDI 유입, 국제신인도 개선 등의 호재에 힘입어 5%~6% 수준의 매우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내수위축과 수출 감소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0.7%)을 기록하였으나, 여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 2010년에는 10월 대통령 선거 관련 정부지출 증가와 감세정책 등 브라질 정부의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내수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7.5%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2011년에도 브라질 경제는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존의 공산품 세금감면 조치 등 경기부양책이 종료되고 신정부가 긴축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소비는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헤알화 강세 지속으로 수출산업 부문이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낮아질 전망임.

□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최근 물가 상승 압력 증가

○ 금융 불안과 헤알화 약세로 인해 2003년에 14.7%까지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에 힘입어 2006년 4.2%, 2007년 3.6%로 크게 낮아짐.

○ 2008년에는 헤알화 강세와 정부의 긴축 통화 정책기조에도 불구,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민간소비 확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7%로 상승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내수위축 등으로 4.9%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여 물가상승률은 5.0%의 안정세를 지속하였음. 2011년 들어 외자유입 증가와 대규모 기업대출로 인한 내수 활성화로 인해 물가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억제목표(6.5%)를 소폭 상회한 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재정수지 개선 추세 지속

○ 긴축정책 지속으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GDP의 4.25%)를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으나, 부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 제 성 장 률	4.0	6.1	5.2	-0.7	7.5
재 정 수 지 / G D P	-3.0	-2.8	-2.0	-3.4	-2.1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6	5.7	4.9	5.0

자료: IMF, EIU.

○ 긴축 재정정책과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05-07년에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3% 내외 수준을 유지하였고, 2008년에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이 2.0%로 축소되었음.

○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브라질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3.4%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대선을 실시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정부의 긴축정책 고수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의 2.1%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도 지우마 호우세피 신정부가 긴축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낮은 국내저축률과 투자재원의 해외의존이 경제성장의 걸림돌

○ 브라질은 높은 소비성향과 과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한 은행 예금 기피 현상으로 저축률이 20% 내외 수준에 불과(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30% 상회)하는 한편,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가 연리 4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기회가 사장되고 있고, 신생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사업여건임.

나. 성장 잠재력

□ 브릭스(BRICs) 국가 중 하나로 향후 성장 잠재력 큼

○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구 1억 9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치·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한해 3억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수출하고 있음. 주요 농작물은 밀(세계 3위), 콩(세계 1위), 쌀(세계 10위), 커피(세계 1위), 설탕(세계 3위), 면화(세계 6위)임.

- 석유,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크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의 완전자급을 달성하였고 2007년부터 석유수출국 대열에 진입하였음.

- 브라질은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음. 브라질 국내 기업도 석유, 철강, 항공기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으로 약화되었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

○ 브라질은 헤알 플랜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전력, 통신, 석유, 가스 등 기간 산업 분야의 국가 독점폐지, 국영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해왔음.

○ 룰라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인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등 각종 개혁정책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음. 2011년 1월 출범한 지우마 호우세피 정부는

현재 긴축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나, 고속철도 사업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국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빈곤감축과 소득불평등 축소 가시적 성과 달성

○ 브라질은 룰라 정권 취임 이후 고용확대,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Bolsa Familia) 등에 힘입어 실질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축소와 소득불평등 해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업률은 2003년 말 11%에서 2009년 말 6%대로 하락하였으며, 저소득층 비율이 2006년 46%에서 2008년 26%로 크게 감소하였음.

3. 대외거래

□ 2008년 이후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기록

○ 헤알화 평가절하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3년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이후 다시 적자로 반전되어 최근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의 배당송금 증가로 소득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임에 따라 2008년에 28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2.3%인 474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2011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GDP의 2.7%인 684억 달러로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규모 지속 축소

○ 2005년에는 수출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규모는 2005년 1,183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2,019억 달러로 5년 만에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 수입규모도 경기회복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 증가로 2005년 736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81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경상수지	13,620	1,551	-28,192	-24,302	-47,365
경상수지/GDP	1.3	0.1	-1.7	-1.5	-2.3
상품수지	46,457	40,032	24,836	25,290	20,221
수출	137,807	160,649	197,943	152,995	201,915
수입	91,350	120,618	173,107	127,705	181,694
외환보유액	85,148	179,431	192,842	238,539	288,575
총외채잔액	193,460	237,610	262,140	276,930	346,520
총외채잔액/GDP	17.8	17.4	15.9	17.4	16.6
D.S.R.	37.0	27.4	23.0	22.9	26.1

자료: IFS, EIU.

○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447억 달러) 4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007년까지 4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수출 증가를 상회하는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2010년에는 20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더욱 축소되어 17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FDI 급감 후 점차 회복 중

○ 2004년에는 M&A 호조, 자동차와 통신업 설비투자 증대 등으로 FDI 유입액이 182억 달러(중남미2위, 세계10위)를 기록하였으며, 2006~07년에도 FDI 유입액은 각각 188억 달러와 346억 달러를 기록함.

○ 브라질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PAC) 추진, 광물·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FDI유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4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은 260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에는 485억 달러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2011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헤알화 강세 지속

○ 브라질 경제가 고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브라질의 실질금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외자 유입이 급증하였고, 이는 헤알화 강세로 이어졌음.

○ 헤알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6월 말에는 달러당 1.59헤알까지 떨어지는 등 강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 다시 약세로 전환되어 2008년 말에는 달러당 2.34헤알까지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9년 2분기 이후 헤알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고, 외자유입 억제를 위한 외환거래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2010년 말 헤알화 환율이 달러당 1.67헤알을 기록하는 등 헤알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었음.

○ 2011년에도 헤알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6월 현재 헤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1.63헤알임.

□ 금융거래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 지속

○ 외자유입 급증으로 인해 헤알화 강세가 지속되자 브라질 정부는 2010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단기 외자에 대한 금융거래세(IOF)를 조정하여 이를 2%에서 6%로 4% 포인트 인상하였음.

○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융거래세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1.5%를 부과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9년 10월부터 2%를 재부과해 왔었음. 브라질 정부는 10월 4일 동 세율을 4%로 인상하였고, 불과 2주가 지난 10월 18일에 6%로 2% 포인트를 추가 인상하였음.

○ 브라질 정부의 외자유입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3년 말 490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이 2010년 말에는 2,886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1년 6월 현재 세계 4위인 3,554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외채지표 개선 추세 지속

○ 수출호조와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증가와 외채 조기 상환 실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채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실제 외채 상환불능 위험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 총외채 잔액은 2010년말 현재 3,465억 달러 수준이며, GDP대비 총 외채 비율은 2004년 33.5%에서 2010년에는 16.1%로 크게 낮아졌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03년 1월 집권 1기 룰라 정부 출범

○ 2003년 1월 출범한 노동자당(PT)의 룰라 정부는 중도좌파성향의 노동자당 정부라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으나,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룰라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됨.

○ 2002년 대선 유세기간중 집권노동자당(PT)의 비밀계좌로 불법정치자금 300여만 달러가 입금됐다는 의회 증언에 이어, 노동자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80여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야당 의원 매수 스캔들로 룰라정부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었음.

□ 2007년 1월 집권 2기 룰라 정부 출범

○ 정치 스캔들과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007년 1월 집권 2기 룰라 정부가 출범함.

○ 연립 여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정국안정이 기대되었으나, 연립 여당 내 정당 간 권력분쟁과 지방정부의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등으로 인해 조세개혁 및 사회보장개혁과 같은 경제개혁정책 추진은 다소 후퇴되었음.

□ 2011년 1월 집권여당의 지우마 호우세피 정부 출범

○ 2010년 10월 31일 집권여당의 정무장관이자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우세피 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0년 1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지우마 정부는 전임 룰라 정부와 마찬가지로 10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로서 초대 37명의 각료 중 17명이 집권 노동자당 출신 인사로 채워졌고, 나머지는 여타 연립정부 정당 인사로 구성되었음. 한편, 37명의 초대 각료 중 여성은 9명이며, 전임 룰라정부에서 유임된 각료는 10명이었음.

○ 지우마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각료 중 다수를 유임시키는 등 룰라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지우마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PAC)에 깊이 관여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지우마 대통령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음. 지우마 대통령은 2014년까지 극빈곤층을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룰라 정부의 대표적 빈민구제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 격차와 치안 불안 지속

○ 브라질은 소득의 상위 10%가 국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의 상위 3%는 전체 농경지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 반면에 브라질 국민의 43.5%는 하루 소득이 2달러 이하인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등 빈부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브라질에서 극빈곤층은 가구의 1인당 평균소득이 최저임금의 4분의 1이 넘지 않는 계층을 말함. 현재 브라질의 최저임금이 510헤알(약 302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소득이 75.5달러 미만인 가구를 극빈곤층으로 분류하며, 현재 브라질 극빈곤층 인구는 약 1,300만 명임.

○ 이러한 사회 현실로 인해 브라질은 20대 80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기타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강력범죄, 마약,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그러나 룰라 정부 취임이후 소득분배 및 빈곤층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브라질 6대 도시의 지니 계수는 2002년 0.64이었으나, 2009년에는 0.57로 개선).

□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 독립 이후 수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혈 쿠데타였으며, 잦은 정변에 불구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내전과 같은 심각한 폭력사태로 발전한 적은 없었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임.

○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심각한 소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으며, 반국가 단체나 테러 단체의 활동 위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3. 국제관계

□ 역내 영향력 확대,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

○ 브라질은 중남미의 정치·경제 통합 및 역내 주도권 강화를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신흥경제국(IBSA, 남아공와 인도) 등과 연대하여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확대하고 있고, 과거 미국, EU 중심의 통상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미국, EU와는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추진

○ 미국과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협상, 철강 분쟁, 농업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잦은 마찰을 보이고 있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FTA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미국의 남미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EU와는 Mercosur와 FTA 협상 지속, 전략적 협력관계 체결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나, EU 시장에 대한 농산물 개방, 자동차 시장 및 통신시장 개방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음.

□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 추진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고위인사 교류, 교역 및 투자유치단 파견 등 브라질이 최근 경협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교역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브라질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 입장을 취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2005년 12월 IMF 차관 잔액 156억 달러와 2006~07년에 기일 도래하는 파리클럽채무 25.75억 달러를 전액 조기상환하였음.

○ 2006년 2월에도 브래디 본드 채무잔액 66.4억 달러 전액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매(buyback)하였음.

○ 브라질 정부의 외채 조기상환 실시는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불안을 조기 예방하는 한편, 브라질의 투자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채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8년 2월, 브라질이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이 순외채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브라질의 대외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 국제시장평가

□ 3대 신용평가사 모두 투자적격등급 부여

○ S&P는 2008년 4월, 경제정책 및 제도의 성숙도를 반영하고 채무부담이 완화되고 향후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브라질의 정부 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Moody's도 2011년 6월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Fitch는 2008년 5월 재정수지, 실업률 등 거시경제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적격등급인 BBB-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수지 개선을 근거로 브라질의 정부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2 (2011.7.)	B2 (2010.12.)
OECD	3등급 (2011.6.)	3등급 (2010.7.)
S&P	BBB- (2011.4.)	BBB- (2010.12.)
Moody's	Baa2 (2011.6)	Baa3 (2009.9)
Fitch	BBB (2011.4	BBB- (2009.5)

3. 주요 ECA 인수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단기인수 가능
○ 독일 Hermes: 정상인수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 **주요협정:** 무역협정 ('63), 문화협정 ('66), 이중과세방지협정 ('89), 과학기술협력협정 ('91), 투자보장협정 ('95), 범죄인인도조약 ('95), 관광협력협정 ('96), 사증면제협정 ('01), 형사사법공조조약 ('02), 국방협력협정 ('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브라질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순위 13위의 국가이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에 이은 2위의 수출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1990년 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7억 달러, 2010년에는 78억 달러로 급신장하였음. 대 브라질 수입도 1990년 7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9억 달러, 2010년에는 4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수년간 대 브라질 수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무역수지도 2006년에 3.6억 달러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0년에는 3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표 5> **한·브라질 교역 규모**

단위 : 천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5,925,866	5,311,210	7,752,579	운송장비, 대두, 커피, 자동차
수 입	4,380,460	3,743,503	4,712,085	기계, 전자및운송기기, 원유, 화학제품
합 계	10,306,326	9,054,713	12,464,66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LCD 및 칼라 TV 부품, 핸드폰 부품 및 건설 중장비 등임. 특히 자동차는 2009년부터 대 브라질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10년에는 대 브라질 수출의 25.6%를 차지하였음. 한편, 대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석, 펄프, 천연섬유 및 농산물 등 주로 원자재임.

○ 우리나라 기업의 대 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불과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경협잠재력이 부상되고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98년 경제위기와 2002년 금융불안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2004년까지 투자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부터 브라질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7년에는 신규법인수 21개,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대 브라질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08~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 기업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대 브라질 직접투자 규모가 각각 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브라질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0년에 SK네트워크의 브라질 철광석 기업 MMX 지분 인수를 위한 대규모 투자(7억 달러)로 인해 대 브라질 직접투자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신규법인수도 32개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음.

○ 2010년 말 현재 대 브라질 직접투자 규모는 신규 법인수 157개, 26.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투자업종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이며, 투자지역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나우스 지역, 상업 중심지인 사웅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 등에 이루어지고 있음.

Ⅴ. 종합 의견

○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은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내수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증가세 지속,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 특수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FDI 유입 확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 외채 조기상환 등으로 외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음.

○ 3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는 등 브라질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브라질 정부가 경제체질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제전망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08년 이후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고, 경제성장 가속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는 등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

○ 집권 여당의 지우마 호우세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중산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어 정치, 사회적 안정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문의 : 책임조사역 이기수(☎3779-5719)
E-mail : real_ksl@koreaexim.go.kr